

전국 첫 첨단기술 창업 청년 지원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오세요

28일까지 온라인 사전신청 후
보육기관에 신청서 원본 제출
지역특화기술 100명 등 150명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 제공
최대 2년간 2400만원 지원

전남도가 전국 최초로 미래 첨단분야 기술을 중심으로 창업에 도전하는 청년들을 지원하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을 추진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오는 2034년까지 도내 벤처기업 3000개,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300개, 상장기업 30개 육성을 목표로 하는 '3·3·3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오는 28일까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지원자를 모집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는 대학생·청년들의 미래 첨단분야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조속한 경영안정과 성장에 중점을 두고 운영될 계획이다.

선발된 기업에는 매월 100만원씩 최대 2년간 총 2400만 원의 창업기술 사업화비를 지원하고, 기업 맞춤형 1대 1 멘토링과 경영·회계·법률·투자유치 등 분야별 전문가 코칭 프로그램이 주기적으로 제공된다.

또 16개 대학·출연기관 등의 창업·보육 공간을 중심으로 기술창업 아이템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시제품 제작, 특허·상표·디자인 등 지식재산(IP) 인증,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등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



전남도 관계자들이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램을 지원한다.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 자격은 예비창업자 또는 5년 이내 창업 기업인(2020년 1월 1일 이후 창업) 중 18세부터 45세 이하 청년(1980년부터 2007년 출생자)이다. 선정된 이후 16개 대학·출연기관 창업보육센터 창업시설에 입주하고, 사업자(법인) 주소를 해당 창업시설에 신설·이전해야 한다. 전남도 거주자, 전입 예정자, 타 시도 거주자 모두 지원 가능하다.

다만 전남도 거주자와 전입 예정자, 도내 대학·대학생(석·박사 포함)은 선발 평가 시 우대사항이 적용된다.

선발 규모는 총 150명(기업)으로 창업 분야별로 우주항공·바이오·인공지능(AI)·데이터·에너지 등의 지역특화기술 100명, 농수산기술 30명, 문화관광 20명 등 미래 첨단분야 기술창업 중심으로 선발한다.

신청은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 누리집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를 업로드해 사전 신청을 완료하고,

희망하는 보육기관을 방문해 신청서 원본을 제출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만 진행하고 방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접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를 포함한 총 11종으로, 공고일 이후에 발급된 증명서만 유효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남도 벤처창업종합안내창구 또는 16개 보육기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형 청년창업사관학교가 벤처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청년들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고, 전남 창업 생태계 활성화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지역특화분야 기술창업을 희망하는 대학생·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향후 선발된 150명을 대상으로 임업식을 개최해 참여기업 간 네트워킹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의 명확한 방향성과 목표를 공유함으로써 초기 성과 달성을 위해 기반을 다질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전국서 가장 깨끗한 대기질' 이유 있다

초미세먼지 농도 가장 낮아...탄소 중립 대책 효과
계절관리제 통해 산업·발전 등 4개 부문 매주 점검

전남도의 대기질이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도는 20일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4년 12월~2025년 3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14.5 $\mu\text{g}/\text{m}^3$ 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다"고 밝혔다.

이 기간 초미세먼지 평균농도는 지난해 평균 농도(15.9 $\mu\text{g}/\text{m}^3$)보다도 8.8% 낮은 수치다.

특히 1~6차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전남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매번 하락한 것으로 분석됐

다. (1차 17.9→2차 17.8→3차 19.0→4차 18.1→5차 15.9→6차 14.5)

전남도 사·군과 탄소배출 사업장 등과 적극 추진한 미세먼지 저감대책이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했다.

전남도는 이번 제6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 수송, 산업·발전, 도민 생활공간 집중관리, 예측 및 선제대응 등 4개 부문 18개 이행과제별 추진 실적을 매주 점검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차량 3450대의 배

출가스 및 공회전을 집중 단속했고, 대기관리권역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 37개소를 방문해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을 점검했다.

또 드론이나 이동형 질량분석시스템 측정차량 등 첨단 감시 장비와 민간점검단을 통해 산업단지 등 대기배출사업장 밀집지역을 상시 단속해 449건에 대해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등 행정적 조치가 이뤄졌다.

전남도 관계자는 "산업, 수송, 생활 등 핵심 배출원에 대한 집중적인 저감정책과 도민의 협조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개선됐다"며 "도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도 '매니페스토' 3년 연속 최우수

민선8기 공약 64% 완료
'웹소통'·'공약일치도' 합격

전남도는 20일 "2025년 전국 시·도지사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우수(SA)' 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3년 연속 공약 이행 전국 최우수 광역자치단체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올해 2월7일부터 4월25일까지 전국 시·도에서 제출한 자료와 누리집에 공개된 공약 이행 자료 등을 종합 분석해 공약 이행완료도, 2024년 공약 목표달성도, 주민소통, 웹소통, 일치도,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했다.

전남도는 민선8기 전체 공약 중 64%를 완료해

전국 시·도 평균 이행완료율(51.62%)보다 12.38%포인트 높았다.

또 추진 중인 전체 공약 목표율 97% 이상을 달성, '웹소통'과 '공약일치도' 항목에서도 합격 판정을 받아 종합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전남도는 '2023년 공약실천계획 평가', '2024년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공약 관련 평가에서 모두 최우수 등급을 획득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3년 연속 공약이행 최우수 평가는 도 공직자들의 노력과 함께 도민의 목소리가 공약의 완성도를 높였기에 가능했던 값진 결과"라며 "남은 임기 동안 행정 역량을 집중해 도민과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전남 AI 첨단농산업 육성 전략과 농협의 역할은

전남연구원, 전문가 세미나

전남연구원은 20일 오후 연구원에서 '전남 AI 첨단농산업 육성 전략과 농협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

이날 세미나에서 강혜정 전남대 농업경제학과 교수는 "기후변화, 재배면적 감소 등으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따라 지역 차원의 대응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전남은 고품 스마트팜 혁신밸리, 나주 첨단무인자동화 농업생산시범단지 등 스마트농업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육성에 적합한 환경"이라고 강

조했다.

강 교수는 또 AI 첨단농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농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 연구·실증사업과 기술개발부터 생산, 유통, 수출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옥희 수도권공공기관유치지원센터장도 "농협중앙회의 전남 이전은 국내 농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이라며 "빛가람혁신도시의 1차 이전 농생명 공공기관을 포함한 지역대학, 산업체와의 적극적인 산·학·연 연계가 촉진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전남 '청소년 어울림마당' 개최

전남도는 지난 17일 무안 남악중앙공원에서

'2025년 전남도 청소년 어울림마당'을 개최했다.

전남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꿈을 실현하는 OK NOW! 전남 청소년"을 주제로 전남 청소년들의 끼와 재능을 마음껏 선보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행사는 1부 개막식을 시작으로 2부 공연마당, 체험부스 운영 등 다양하게 펼쳐져 참가자에게 풍성한 볼거리와 즐거움을 선사했다.

개막식에는 꿈을 향한 열정과 도전으로 예체능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청소년, 효행·봉사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청소년 등 6

명에게 전남도 청소년상을 수여했다.

공연마당에서는 전남영재드림오케스트라 초청공연과 청소년동아리 12개 팀이 무대에 올라 관악기, 밴드 공연, 케이팝(K-POP) 댄스 등 그동안 갈고 닦은 끼와 재능을 마음껏 펼쳐 관객들의 큰 호응을 이끌었다.

또 체험·홍보부스 22개 동을 운영해 바리스타 체험, 키링만들기, MBTI 검사 등 지역 주민과 청소년 모두가 함께 즐길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상담이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현장 상담 및 '청소년 상담 1388' 홍보 부스도 운영됐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시를 꽃처럼 피워 주변을 시꽃으로 밝히고 싶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상처 받아도
시가 만나야 할 궁극적인 대상은 사람입니다.

조선의 시인 문예지 ‘시꽃피다’ 창간



조선의 시인

농민신문신춘문예 당선, 기독교신춘문예 당선, '미션21' 신춘문예에 당선,

상상인 작품상, 송순문학상, 김만중문학상, 거제문학상, 신석정문학상 등 수상.

'아직 도달하지 않은 입의 문장', '빛을 소환하다', '꽃 향기의 밀서', '꽃으로 오는 소리' 등 발간.

〈시꽃피다〉 광주 시장작 강사, 〈시꽃피다〉 전북지역 시장작 강사, 서울 성동구 평생교육원 시장작 강사, 담양문화원 시쓰기 강사

